

2021 August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7월 동향

한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에 따른 매파적 스탠스와 미 FOMC의 완화적 결과가 상충하는 가운데 델타변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큰 폭 등락 시현

미국 고용지표가 실업률과 고용지표가 엇갈린 행태를 보이며 회복에 불확실성을 보인 가운데 델타 변이도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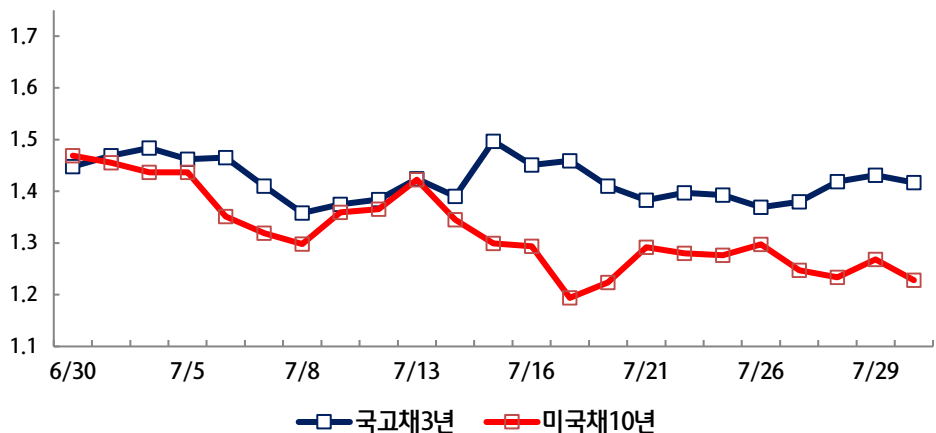
7월 금통위의 매파적 영향이 전반적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 영향에 대해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지속이 금리 상승세 제한

- 7월 초, 코로나 델타 변이 영향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대외적 미 고용지표 혼조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며 약보합 흐름 시현하며 출발
 - 코로나 델타 변이 영향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락 출발
 - 이어 미 고용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6월 FOMC 의사록의 매파적 성향이 시장 예상 하회 및 델타 변이 등에 따른 국내 거리두기 강화 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확대되며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한은 금통위의 예상보다 강한 매파 성향으로 상승 전환 양상을 나타냈으나, 국내 델타 변이 확진자 급증에 거리 두기 강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며 금리 급등 제한
 - 중반, 한은 금통위의 연내 금리인상의 기정사실화 스탠스에 따른 매파 성향 강화 인식 등이 금리 상승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
 - 이후, 국내 델타 변이 확산세가 대유행으로 번지는 가운데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내수 위축 가능성 점증 등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을 확대하며 금리 급등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후반, 한은의 올해 4%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명이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친 반면, FOMC의 완화적 금리 결정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이 금리 상승 제한에 영향
 - 7월 후반, 한은의 올 성장 목표 4% 달성에 대한 자신감 등이 국내 수출 감소 영향을 제한 시키며 상승 흐름에 영향
 - 이어 FOMC의 시장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완화적 스탠스 및 대내적 수급상황 등이 고려된 채권매수 투자심리 개선 등이 한은의 매파 성향을 다소 제한시키며 하락 전환 흐름에 영향 미치는 형국 시현

주요 시장금리 추이

7월 평균
 국고채(3년): 1.42%
 T-Note(10년): 1.31%



8월 전망

국내 성장 전망 경로를 고려할 때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치겠으나, 연준 완화적 기조 유지 전망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대는 상승 제한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1	2Q21	3Q21	4Q21
국고채(3y, %)	1.04	1.12	1.40 ^(F)	1.50 ^(F)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연준 고용 중시 기조에 따른 통화완화 지속 가능성 유지될 전망

-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표의 상승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테이퍼링 이슈에 탄력을 붙이는 형국이나, 미 국채금리에 내재된 정보는 현재 델타변이 등에 따른 경기불확실성 가능성을 함축하며 상승추세가 꺾인 모습으로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유지 가능성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 전환 여력 약화 등이 국고채 금리 상단 제한할 요인
 - 미국 CPI와 민간고용 등이 개선을 보이며 시장참가자들의 테이퍼링 이슈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
 - 하지만, 연준은 연말까지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 속 고용지표 목표 부합까지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은 미국채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이에 동조 될 전망

8월 중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 가능성 점중

-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는 8월 중 기준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높인 상황으로 판단
 - 국내 수출, 물가 상황 등이 성장의 예상 전망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은 금통위의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현재의 국내 코로나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른 거리 두기의 영향이 민간소비 회복 등에 부정적일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 할 때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선반영 된 국고채금리 상승 추세는 상당 부분 되돌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월 국고채(3Y) 금리는 1.35-1.50% 예상

- 국내 경제 펀더멘털 상 성장의 전망 경로 유지는 회복기조를 반영한 금리 상승에 영향 요인이나, 코로나 변이 상황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의 상황이 상승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2분기 GDP 성장이 전분기 대비 0.7% 기록한 가운데 민간 소비 위축 등에 대응한 추경 보완 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에 전망 경로가 유지될 수 있는 측면 등은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다만, 전세계적 코로나 델타 변이 상황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된 측면이 미 국채 금리 하락에 반영되고 있는 점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은의 8월 중 기준금리 인상 · 연준에 대한 시장의 테이퍼링 기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준의 완화적 기조 · 델타 변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불확실성

달러/원 환율

7월 동향

한은 금통위의 매파적 스탠스가 환율 상승 제한하는 모습이었으나, 미국 물가지표 상승에 따른 테이퍼링 기대와 대내적 코로나 확산세 확대에 의한 원화 약세 영향이 동반되며 1,150원대 안착 양상 시현

미국 6월 민간 고용 지표 호조, 미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달러 강세 견인

- 월초, 6월 미 민간 고용 호조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환율 상승 출발 후, 미 서비스 지표 부진 속 코로나 델타 변이 영향이 국내 경기회복에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 등으로 상승 지속
 - 미국 6월 민간고용 호조가 월초 인플레이션 기대를 강화시키는 가운데 달러 강세 반영 속 상승 출발
 - 이어 미 서비스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가운데 델타 변이의 국내 확산세가 경기 회복에 부정적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원화 약세 지속하는 모습 시현

미국 CPI 급등에 인플레이션 심리 강화되며 테이퍼링 이슈 급부상 영향이 환율 상승 요인. 다만, 금통위의 매파적 성향이 상단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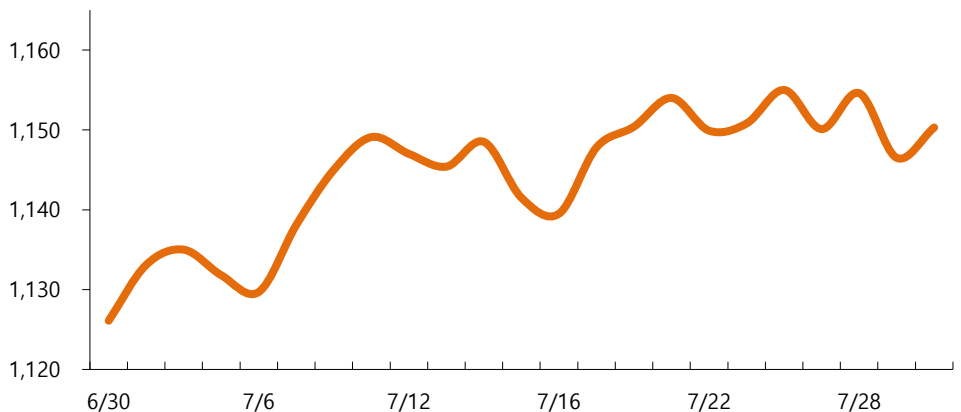
- 월 중반,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 미 CPI 급등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였으나, 금통위의 매파적 스탠스로 큰 폭 되돌림 시현, 이후 세계적 델타 변이 요인 속 국내 증시자금 유출 등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
 - 국내외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미국 CPI 급등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모습 보이다, 한은 금통위의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 강화 등으로 큰 폭 하락 되돌림 되는 양상 시현
 - 이어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업실적에 대한 타격 우려 등으로 증시 등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지속되며 원화 약세 심화하는 양상

코로나 확산이 원화 약세 영향 지속시키는 가운데 중국 산업 및 증시 규제 리스크 등이 위험회피 강화하며 원화 약세 지속

- 7월 후반, 중국 산업규제 리스크에 따른 중국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회피 강화시킨 가운데 미 GDP 시장 예상 하회 등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하면서 1,150원대 안착하는 모습 시현
 - 중국 산업, 증시 등의 규제 리스크 강화로 중국증시 변동성 확대되며 원화 약세 영향 받는 모습 보임
 - 여기에 미 GDP의 예상치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점이 코로나 확산세와 맞물리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한 측면이 1,150원대 안착에 영향을 미치는 형국 보이며 마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7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45.1
7월말 달러/원 환율 : 1,150.3



8월 전망

연준 현 기조 유지 가능성과 한은 금리인상이 하락 요인이나, 유로존 통화완화,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델타변이 확산세 지속 등이 위험회피 강화를 통한 주요 환율 상승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1	2Q21	3Q21	4Q21
달러/원 환율(원)	1,114.7	1,118	1,145 ^(F)	1,155 ^(F)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주요 초점을 두며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강조할 가능성 높을 전망

- 8월 잭슨홀 미팅에서의 Fed에 대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 기대에도 연준의 테이퍼링 의도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 강세를 제한하며 환율 1,150원 수준 이상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 유지는 시장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를 지속하며 연준에 대한 테이퍼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에 탄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팬데믹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백신접종을 기점으로 회복 양상이나, 여전히 실업률은 목표 수준에 미흡한 상황으로 연준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만을 반영하여 테이퍼링에 바로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는 가운데 잭슨홀 미팅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한은의 8월 금리인상 가능성 점중이 사전적 환율 하락 요인이나, 민간소비와 기업생산 위축으로 연계 성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면 환율 하락 상쇄될 것으로 보임

- 전월 매파적 한은 8월 금통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원화강세 요인 될 전망이나, 실제 실행 시 최근 델타변이 우려 속 민간소비와 기업 생산 활동 위축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 커질 측면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환율 하락 상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은은 국내 성장이 전망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8월 중 매파적 스탠스 반영한 금리인상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본유입 등을 통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
 -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민간 소비위축과 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대외 신인도 저하에 따른 자본유입 제한 속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에는 중립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듯

8월 달러/원 환율 1,135 ~ 1,160원 변동 예상

- 대외적 ECB 완화적 기조 유지에 따른 유로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치 이슈에 따른 산업규제 조치 등은 중국 금융 변동성을 높이며 위험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백신접종 확대와 영국의 방역 완화 등 새로운 도전에도 유로존의 경기 불투명성이 여전함에 따른 ECB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최근 중국 정부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한 일련의 산업규제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위험회피 심리에 영향을 미칠 예상에 따른 점 또한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인플레이션 지속하는 가운데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기대 지속 유로존 통화완화 지속에 따른 유로 약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스탠스 지속 한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 점중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연준에 대한 테이퍼링 기대, 완화적 BOJ 스탠스 및 일본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 등이 엔화 약세를 우위에 놓을 전망 속에 엔/원 환율은 금통위 금리 인상 기대 등의 요인에 따른 상대적 원화 강세 영향 반영으로 소폭 하락 예상

7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0.2
7월 엔/원 평균환율 : 1,038.9

8월 엔/원 예상범위 : 1,025~1,045

- (동향) 엔화는 미 고용과 제조업 지표 호조 등 상대적 경기 우세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 출발 후, 6월 미 의사록 완화적 기조, 도쿄 올림픽 전 긴급사태 발효에 따른 경제 펀더멘탈 약화 등으로 상승 시현. 이어 미 CPI 급등, 일본 산업생산 부진에 약세 지속 후, 미 FOMC 완화적 영향으로 강세 전환 후 미 성장률 지표 예상치 하회의 달러 약세 반영하다 매파적 연준 위원 발언으로 소폭 상승 전환 마감. 다만 원화 상대적 약세가 월 중 이어지며 엔/원 환율도 상승
- (엔/원 전망) 최근 미 국채금리 하락 전환에 미-일 금리차 확대 제한 등이 엔화 약세 제한하겠지만 테이퍼링 기대가 반영된 달러 강세, 비교적 완화적인 BOJ 스탠스, 코로나 비상사태 지속 등이 전반적 엔화 약세에 영향 미칠 가운데 원화 상대적 강세 속 엔/원 환율 하락 예상
 - 연준의 테이퍼링 기대 속 완화적인 BOJ 스탠스, 코로나 사태 확산 지속에 따른 경제 펀더멘탈 우려 등이 엔화 약세 견인할 가운데 최근 미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제한 등이 엔화 약세 제한할 전망
 - 원화도 연준 통화방향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긴 하나, 상대적 코로나 방역 우위와 대내적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 등이 상대적 원화 강세에 영향 미치며 엔/원 환율 소폭 하락 전망

유로/원 전망

연준에 대한 테이퍼링 기대, ECB의 강력한 통화완화 지속 등이 유로 약세에 영향을 미칠 가운데 원화의 금리인상 기대와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강세에 영향 미치며 유로/원 소폭 하락 예상

7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825
7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54.1

8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25~1,360

- (동향) 유로경기가 상대적 미국 경기회복보다 저조한 성적 속에 연준에 대한 시장의 테이퍼링 기대 등의 달러 강세가 대외적으로 유로 약세 견인시킨 가운데 ECB의 강한 통화완화 정책 유지 등으로 중반이후까지 약세 흐름. 이후 월 후반 미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 유지 속 미 GDP 부진 등에 따른 달러 약세 반영되며 강세 흐름 전환. 유로/원은 원화의 전반적 약세 흐름 속 유로화 방향성 반영하며 중반까지 하락 추세 보이다 후반 상승 흐름으로 전환 시현
- (유로/원 전망) 백신접종의 순조로움 속에 이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에도 연준에 대한 경제주체 테이퍼링 기대 속 달러 강세와 매우 완화적인 ECB의 통화완화 등이 유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원화의 금리인상 요인 등에 따른 상대적 강세 예상으로 소폭 하락 예상
 -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접종 확대 속에 EU 공동 회복 기금 개시 등의 영향이 경제봉쇄의 빚장을 푸는 유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 모멘텀을 작용할 전망이나 현 단계에서 가시화까지는 시차가 예상
 - 반면, 연준에 대한 경제주체 테이퍼링 기대, ECB의 현 통화완화 지속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가운데 원화의 레인지 등락 속 금통위 금리인상 요인 등에 따른 상대적 소폭 강세로 유로/원 하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1.7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RBA 통화정책회의	4	5 BOE 통화정책회의	6	7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지, ()안은 이전지	한 7월 수출/수입(39.7%/40.7%, YoY) 7월 무역수지(\$4440M) 7월 Markit PMI 제조업(53.9) 미 7월 ISM 제조업지수(60.6), New Orders(66) 7월 ISM 고용(49.9) / 구매물가지수(92.1) 7월 Markit 제조업 PMI(63.1) 6월 건설지출(-0.3%, MoM) 유 7월 Markit PMI 제조업(62.6) 중 7월 Caixin 제조업 PMI(51.3)	한 7월 CPI(-0.1% MoM, 2.4% YoY) 미 6월 내구재 주문[F], 제조업 주문(1.7%) 유 6월 PPI(1.3% MoM, 9.6% YoY) 일 7월 본인통화(19.1% YoY) 호 8월 RBA 기준금리(0.1%)	한 7월 외환보유고(\$454.11b) 미 7월 ISM 서비스(60.1) 7월 Markit PMI 종합(59.7)/서비스(59.8) 유 7월 Markit PMI 서비스(60.4) 7월 Markit PMI 종합(60.6) 6월 소매판매(4.6% MoM, 9.0% YoY) 중 7월 Caixin 종합 PMI(50.6)/서비스 PMI(50.3) 일 7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46.4)/종합(47.7)	미 7월 무역수지(\$-71.2b) 7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독 6월 규장수주(-3.7% MoM, 54.3% YoY) 영 8월 영란은행 기준금리 0.10%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한 7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7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850K) 7월 실업률(5.9%) 7월 경제활동 참가율(61.6%) 7월 소비자신용지수(\$35.281b) 7월 시간당 평균임금(0.3% MoM, 3.6% YoY) 일 6월 기계 소비지출(11.6%, YoY) 독 6월 산업생산(0.3 MoM, 3.4% YoY)	중 7월 외환보유고(\$3221.8b) 7월 무역수지(\$51.53b) 7월 수출/수입(32.2%/36.7%, YoY)
8	9	10	11	12	13	14
	유 8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29.8) 중 7월 CPI/PPI(1.1%/8.8%, YoY) 7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2120.0b) 독 6월 수출/수입(0.3%/3.4%, MoM)	미 7월 NRB 소기업 낙관지수(102.5) 유 8월 ZEW 서베이 예상(61.2) 독 8월 ZEW 서베이 예상(63.3)	한 7월 실업률(3.7%) 미 7월 CPI(0.9% MoM, 5.4% YoY) 일 7월 공작기계 수출 전년비(96.6%) 7월 통화량 M2(5.9%, YoY), M3(5.2%, YoY)	한 7월 통화규금 L(-0.5%, MoM), M2(0.6%, MoM) 미 7월 PPI(1.0% MoM, 7.3% YoY) 7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 6월 산업생산(-1.0% MoM, 20.5% YoY) 일 7월 PPI(0.6% MoM, 5.0% YoY)	한 7월 수출물가지수(0.7% MoM, 12.7% YoY) 7월 수입물가지수(2.3% MoM, 14.0% YoY) 미 7월 수출물가지수(1.2% MoM, 16.8% YoY) 7월 수입물가지수(1.0% MoM, 11.2% YoY)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15	16 한국 휴장(대체공휴일)	17	18	19	20	21
	중 7월 소매판매(11.2%, YoY) 7월 광공업생산(8.3%, YoY) 일 6월 광공업생산, 설비가동률	미 7월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0.4%, MoM) 6월 기업채고(0.5%) 유 2Q 고용(-0.3% QoQ, -1.8% YoY) 6월 건설생산(0.9% MoM, 13.6% YoY)	미 7월 주택착공건수(6.3% MoM) 7월 건축허가(-5.1% MoM) 유 6월 CPI(1.9% YoY)	미 7월 FOMC 회의록 공개 8월 플라젤피아 연준 경기 전망(21.9) 8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유 6월 ECB 경상수지 (11.7b)	한 7월 PPI(6.4%, YoY)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 5년 위안화 대출금리 일 7월 전국CPI(0.2% MoM) 독 7월 PPI(1.3% MoM, 8.5% YoY)	
22	23	24	25	26 韓 금융위정례회의	27	28
	한 7월 소매판매(11.4%, YoY) 미 7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09) 8월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7월 기존주택매매(1.4%, MoM) 유 8월 유로존 Markit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일 7월 지분은행 PMI 제조업/서비스/종합	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7월 신규 주택매매(-6.6%, MoM) 8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한 8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8월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8월 내구재 주문	한 8월 BoK 7월 Repo 금리(0.5%) 미 2Q GDP물가지수, GDP연간화QoQ 2Q 개인소비 8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 실업보험 연속수급 신청자수 유 7월 M3 통화규금 전년비 일 7월 PPI서비스(1.4%, YoY) 독 8월 IFO 기업만경지수(100.8)	미 8월 캔자시티 제조업활동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7월 PCE 디스플레이터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중 7월 산업생산(20.0% YoY) 일 8월 도쿄 CPI Fed's Annual Jackson Hole Policy Retreat	
29	30	31				
	미 8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27.3) 유 8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일 7월 소매판매 7월 백화점, 슈퍼마켓 매출	한 7월 광공업생산 7월 경기순환형 선행지수 변동 미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8월 fifa 주택가격지수 2Q 주택 가격 구매지수(3.5%, QoQ) 중 8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PMI 일 7월 실업률, 광공업생산, 연간 주택착공지수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